

# 「KYO 의 해외 인재 활용 플랜」

평성 16년 12월

교토부 국제과

## 1 플랜 책정의 취지

- ◆ 교토는 문화, 예술, 학술의 축적과, 이들로부터 생성된 역사적 건축물, 문화재, 첨단 기술 그리고 풍부한 관광자원 등을 통해 「세계속의 교토」로 발전해왔습니다. 그 과정에는 해외로부터 다양한 문화와 기술을 전해준 사람들이 있었고, 이들이 새로운 교토의 창조를 이룩해왔습니다.
- ◆ 「문화 우선 사회」라고 불리는 이 시대에 교토가 새로운 발전을 이룩해서 세계화(지구 규모화), 보더레스화(무경계화)를 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화, 예술, 학술의 교류와 산·학·공 연계의 실적을 중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외 인재들을 교토의 인적자원으로 활용해 나가는 독자적인 국제화 전략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 교토부는 「우호 친선」에서 「안으로의 국제화」의 단계에 이어 3번째 단계인 시대를 읽는 종합적인 국제 전략하에 열린 교토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세계와 교토의 새로운 관계 구축인 「해외 인재 활용」의 방향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 ◆ 이것은 세계에로의 발신과 동시에, 해외의 인재를 지역 창조의 원동력으로도 활용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21세기의 국제화 사회에 있어서 앞으로의 교토부를 향한 제안입니다.

## 2 「교토의 해외 인재」를 둘러싼 현황

- ◆ **국제 사회에 있어서 교토의 평가**  
교토는 일본의 전통과 문화의 중심으로, 또한 대학과 첨단 산업의 집적지로 해외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국제 사회를 향한 발신력을 가진 일본을 대표하는 지역인 교토는, 수많은 예술가와 유학생을 모으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동경이나 나고야 같이 강력한 경제력을 가진 지역과 비교하거나, 혹은 해외의 역사문화 도시, 첨단 산업 도시와 비교해보면, 교토는 해외 인재를 끌어오는 힘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교토의 실력과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 **해외에서 오는 유학생, 연구자의 동향**  
해외에서 오는 유학생과 연구자의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대학들은 적극적인 유치를 펼치고 있지만, 대학 도시 지역으로써는 외국인 교원 유입 등 아직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또한 영어로만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대학과 대학원이 거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본의 경제력을 배경으로 유지해 온 대학의 국제 경쟁력은 눈에 띄게 저하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편, 부민이 유학생 등의 활동 상황을 알 수 있는 기회도 많지 않습니다.
- ◆ **유학생, 연구자와 기업 등의 요구가 미스 매치 (부적합)**  
교토에 온 유학생, 연구자 중에는 일본에서 취직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40퍼센트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실제 기업과 연구기관에 취직한 사람의 수는 소수입니다. 한편 아시아와의 비즈니스를 지향하는 교토의

중소기업 중에는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가진 해외 인재를 찾고 있습니다. 해외 인재는 중소기업에 있어서 사업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할 수 있는데, 현재 이 분야에서는 산학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들의 만남은 우연에 의지할 수 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 **해외 인재의 유입을 제약하는 요인**

유학생 등에게는 주거 문제뿐만 아니라, 일본어 학습, 의료, 자녀 교육, 쾌적한 환경, 취직 기회의 부족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해외 인재 유입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교토는 일본 문화를 체험 할 수 있는 지역이면서도 그 기회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편, 유학생과 외국인의 일부가 일으키는 사회 문제가 마스크 등에 크게 보도되어 외국인에 대한 편견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3 「교토의 해외 인재 활용」과 관련된 과제

◆ **「세계 속의 교토」의 역할**

교토가 국제적인 지적 교류, 경제 교류의 거점이 되어 「세계 속의 교토」가 되기 위해서는 중, 장기적인 시점과 국제 사회의 발전, 세계화의 시점에서서 해외인재를 발굴, 유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교토는 대화의 장, 연구의 장, 인재 육성의 장으로써의 역할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 기관 등과 연계해, 경제 활동과 문화 활동을 중심으로 한 교토 정보의 일원적인 해외 발신과 세계적으로 유명한 연구자, 학자, 예술가 등을 유치해야 합니다.

◆ **대학의 충실한 국제 경쟁력**

보더레스(무경계) 사회가 진행되고 있는 현재, 고등 교육의 세계화는 빼놓을 수 없습니다. 교토의 대학이 국제적으로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점을 인식해, 유학생의 「질」과 「양」의 향상을 목표로 「경쟁적 환경 속에 개성이 빛나는 대학 만들기」(문부과학성의 고등 교육 정책)에 대응한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교원을 유입해서, 국제 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 동시에, 지역에 열린 대학으로써 일본어 교육과 외국인 교육 등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해외 인재의 정착을 촉진하는 사회 형성**

교토에 사는 해외 인재가 일본과 교토를 깊이 이해하고 지역에 정착하기 위해, 생활 환경의 세세한 부분까지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호스피탈리티 (따뜻한 맞이) 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문화적 다양성을 배려한 다문화 공생의 교류형 사회 형성을 향해, 정책 제안과 지역의 NPO 와 부민과의 연계, 협동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기업 등과 해외 인재를 중개하는 시스템의 확립**

교토에서 활동하는 많은 유학생, 연구자, 문화인, 예술가 등의 정보가 일원화 되지 않아, 해외 인재들과 부민간의 미스 매칭이 생겼습니다. 이 점을 개선할 수 있는 효율적, 효과적인 중개 시스템의 확립이 중요합니다.

한편 중소기업 등도 해외 인재 활용에 의한 세계화와 활성화의 인식이 부족합니다. 중소기업 등에 해외 인재 활용의 성공 사례를 소개하여 그들의 의식을 높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한 해외 인재가 지닌 문화의 다양성과 우수한 능력을 지역 만들기와 지역 경제의 활성화로 살려내는 것도 필요합니다.

◆ **해외 인재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이해의 촉진**

해외 인재 유입에 따른 사회의 영향과 유입 효과에 관해서 인권 존중을 기본으로 하는 정확한 인식과 충분한 부민 이해를 얻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

**데이터로 보는 교토부의 국제화 (1994→2003)**

1	외국적 부민수	
	57,657명 → 56,817명	
	그 중 한국·조선	46,569명 → 37,676명
	그 외	11,088명 → 19,141명
	중국	4,859명 → 9,925명
	미국	1,277명 → 1,282명
	브라질	920명 → 696명
	필리핀	879명 → 2,525명
	그 외	3,153명 → 4,713명
2	유학생수	
	2,584명 → 4,532명	
3	외국인 연구자수	
	240명 → 684명	
4	일본인 배우자수	
	426명 → 2,718명	
5	외국인 숙박자수	
	39만 7천명 → 48만 8천명	
6	국제회의 개최 수	
	167건 → 209건	
7	국제 활동 NPO 수	
	200단체 → 340단체	
8	국제 활동 자원 봉사자 수 (교토부 국제 센터)	
	259명 → 643명	
9	외국인 형법 범죄건수	
	162건 → 294건	

◆ 전개 1 해외 인재의 유치 추진

- ▶ **세계로부터 다양한 학자, 문화인, 예술가가 모이는 교토**  
교토가 일본 연구, 교토 연구의 거점 - 일본 문화의 발신지가 되어 국제적인 지적 교류, 경제 교류의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 해외 기관의 유치와 해외정보 거점의 정비를 검토하겠습니다.
- ▶ **교토 정보를 효과적으로 해외에 발신**  
교토라는 지역이 가지는 매력, 교토의 문화, 학술 등을 적극적으로 해외에 발신하여 해외 인재 유치를 촉진해 「가보고 싶은, 살고 싶은 교토」, 국제적으로 인지되는 「대학의 도시 교토」를 만들겠습니다.
- ▶ **원활한 해외 인재의 유치를 향한 「해외 인재 특구」의 창설**  
해외 인재 유치에 빼놓을 수 없는 입국 관리 제도상의 요건 개선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해외 전문가의 유치를 위해 「교토 해외 인재 특구」를 창설 (재력 기준 중시에서 능력 기준 중시로 전환, 자격 외 활동의 완화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 전개 2 해외 인재 유입 체제의 정비

- ▶ **해외 인재가 「살기 좋은, 배우기 좋은, 일하기 좋은」 환경 정비**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해외 인재가 필요로 하는 부분을 파악하여 가능한 그 의향을 고려한 환경 정비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다문화 공생 사회가 실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주거, 자녀의 교육은 해외 인재 유입의 기본 조건이므로, 살기 좋은 조건 만들기과 지역이 하나 된 유입 체제를 정비하겠습니다.
- ▶ **국제 경쟁력을 가진 매력 있는 교육 프로그램과 도시 만들기 추진**  
교토에서 배우는 유학생의 교육 수준 향상을 목표로 대학과 연계한 커리큘럼의 개발, 학술 상담, 멘탈 케어 (정신 건강 면의 지원) 제도의 도입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다른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다양한 연구 분야를 가진 대학이 집적해 있는 교토의 특징을 살려 해외에서 온 다양한 연구자와 연구기관의 교류를 지원하겠습니다.
- ▶ **유학생에 대한 우대 제도의 추진**  
유학생의 우대 정책으로 교토의 전통 문화와 산업, 역사 유산, 첨단 산업을 체험할 수 있는 「교토 체험 프로그램」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이 하나되어, 새로운 장학금 제도를 목표로 민간의 협력을 얻기 쉬운 환경 만들기를 검토하겠습니다.

### ◆ 전개 3 해외 인재의 활용 추진

- ▶ **해외 인재의 취업, 활용에 이어지는 인턴 쉽 (취업 체험) 등의 도입**  
우수한 인재의 취업,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 경제 단체, 대학, 행정기관이 연계해 특구 제도를 활용해 나가며 즉시 쓸 수 있는 인턴 쉽 제도를 창설하겠습니다.
- ▶ **해외 인재와 교토 기업 등을 연결하는 매칭 시스템의 구축**  
대학과 민간 기업의 선진적인 방식을 활용하여, 교토부 주재의 해외 인재 (유학생, 연구자 등) 에 관한 데이터 (전문, 자격, 취업 희망 등) 과 기업 등의 구인정보를 일원적으로 등록해, 해외 인재와 기업 등과의 효율적인 연결을 추진하는 「교토 해외 인재뱅크」 (가칭) 을 창설하겠습니다.
- ▶ **해외 인재를 다목적으로 활용**  
해외 인재를 「교토의 인적 자원」 으로 인정해, 지역의 활성화와 국제화를 위해 다양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일상적인 활동의 장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인재들이 국제 교류, 국제 협력에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 ◆ 전개 4 지역이 하나되어 추진

- ▶ **해외 인재를 통한 다문화 공생 사회의 형성**  
해외 인재의 유입과 활용을 통해 다문화 공생 사회의 형성을 위해 노력합니다.
- ▶ **부민 참가의 시책 평가 시스템에 의해 부민 만족도의 향상**  
관계 기관의 연계 체제를 구축해, 해외 인재의 유치, 유입, 활용에 관한 시책을 모니터링 (계속 감시)과 평가에 의한 점검을 해서, 현실을 감안한 과제를 공유하며 대책을 검토하겠습니다. (PDCA사이클에 의한 운용)
- ▶ **해외 인재 활용에 관한 원활한 추진 체제의 정비**  
행정, 기업, 대학, 경제 단체, 연구 기관, NPO 가 각각의 역할을 분담해, 서로간에 이익이 되는 관계 (Win-Win 전략) 을 만들어가며, 부민에게 보여질 수 있는 형태의 적극적인 시책을 시행하겠습니다.

PDCA사이클 : Plan (기획) → Do (실시) → Check (점검) → Action (재평가)

## 5 중점 시책

### 전개 1 해외 인재의 유치 추진

#### ◎ 세계로부터 다양한 학자, 문화인, 예술가가 모이는 교토

- 교토에 국제 기관, 해외의 연구 기관, 외국 공관, 외자 유치를 추진함과 동시에 해외에 정보 발신의 거점을 만드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교토부의 우호 연계 지역의 주요 대학과, 부내 대학과의 학술 교류를 추진하고 있는 해외의 유력 대학 등과 연계해 정보 거점을 정비하겠습니다.
- 아시아 지역의 여행사를 통해 고등학생, 대학생의 수학 여행을 유치하겠습니다.  
→ 매력적인 대학과 기업의 견학 루트를 설정합니다
- 예술, 환경, 종교, 문화 등의 분야에서 국제 자원 봉사자를 모집해, 세계 대학생의 국제 자원활동을 도입합니다.

#### ◎ 해외를 향해 교토 정보를 효과적으로 발신

- 외국인의 시점에 서서 홈페이지의 다언어화를 추진해, 외국인이 필요로 하는 내용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검색도 관광, 유학, 비즈니스, 일본 문화 습득 등, 일본 방문의 목적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 일본 국내의 해외 매스컴 (신문, 잡지, TV, 라디오 등) 에 교토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알리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국제 교류의 기회, 예를 들어 학회와 국제 조직의 총회 등에도 교토 소개의 장을 만들겠습니다. 동시에 해외 유학 박람회에서도 교토를 소개할 수 있는 부스를 개설하겠습니다.
- 도도부현(都道府県), 대학, 기업 등의 해외 거점을 이용함과 동시에, 해외의 일본 대사관, 총영사관, 일본 정부 기관, 주일 각국 대사관, 총영사관 등 관련 기관의 협력을 얻어, 교토 관련 자료를 배치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하겠습니다.
- 교토부 명예 우호 대사를 시작으로 귀국한 유학생을 「유학생 어드바이저」로 위촉하여, 교토 정보의 제공과 유학 희망자의 상담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 ◎ 해외 인재를 원활하게 유치하기 위해 「해외 인재 특구」를 창설

- 「교토 해외 인재 특구」를 창설하여 현재의 재력 기준 중시의 판단을 개선해 능력 중시의 심사를 하는 등, 우수한 해외 인재의 유입을 위해 심사 기준의 개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 해외의 연구자, 문화인, 예술가 등이 단기간 교토를 방문할 때도 강연 활동 등의 취로가 가능하도록 요건의 완화를 요청하겠습니다.  
→ 우수한 해외 인재가 여름 휴가 등을 이용해 교토를 방문해, 수입을 얻으며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는 우대 조치를 도입하겠습니다.  
→ 교토에 오는 연구자, 문화인, 예술가들이 교토 문화를 이해 할 수 있도록 그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겠습니다.

◎ 해외 인재가 「살기 좋은, 배우기 좋은, 일하기 좋은」 환경 정비

- 재주 외국인을 교토 부민과 동등한 지역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 매김 해서, 다민족, 다문화를 배려한 사회 제도의 개선을 추진합니다.
- 유학생, 연구자를 위한 기숙사 (세미나, 학습, 연구 기관을 갖춘 설비) 와 단기 체류자를 위한 기숙사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특구의 활용 등을 이용하여, 부영 주택 등 공공 시설의 적극적인 활용과 가구가 갖추어진 주택을 정비하겠습니다. 동시에, 기업의 사원 기숙사, 재활용 가구 등의 효율적인 활용과 단기 초빙 프로그램 참가자를 위해 적은 요금의 숙박 서비스 등에 관해 검토하겠습니다.
- 재주 외국인이 가진 큰 문제 중 하나가 자녀들의 교육 환경 만들기입니다. 따라서 교육 기관 등과 연계해 자녀들의 일본어 교육 지원과 모국어, 모국 문화 교육을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교육 시스템을 정비 하겠습니다.
  - 특구를 활용하여, 교원 면허를 가진 해외 인재와 학교 등에서 활약하는 영어 지도 조수가 이런 계획에 참가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국제 경쟁력을 가진 매력 있는 교육 프로그램과 도시 만들기 추진

- 영어로 학위를 취득하는 코스, 단위 취득 프로그램과 단기 일본어, 일본 문화 학습 프로그램의 제공, 교토, 일본 문화와 전통 예능을 배우는 「교토학, 일본학」 강좌의 개설 등 매력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추진을 지원하겠습니다.
- 학습 지도원, 생활 지원사의 확립, 학부생에게 대학원생이 학술 상담을 하는 제도의 창설, 다언어 심리 상담 제도의 정비, 논문 지도 제도의 충실화 등 체제 정비를 지원하여 충실한 유학생생활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 대학과의 연계를 통해, 해외의 저명한 연구자를 초빙해서 공동 연구를 추진합니다.
- EU 관계 기관의 거점형성과 관서 일·불학관, 교토 독일 문화 센터, 이탈리아 문화 회관, 브리티시·카운실 등 국제 문화 단체와의 적극적인 교류를 추진합니다.

◎ 유학생에 대한 우대 제도를 추진

- 경제계를 시작으로 민간의 협력을 얻어, 지금까지의 교토부 명예 우호 대사 제도를 발전시키겠습니다. 그리하여 지역에서 유학생의 학습 환경을 지지할 수 있는 교토의 독자적인 장학금 제도를 창설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의 협력을 더욱 얻기 쉬운 시스템 만들기를 검토하겠습니다.
- 유학생의 교토 이해를 촉진해, 「친교토파」를 기르기 위해, 전통 문화와 산업 체험 등의 「교토 체험 프로그램」의 실시와, 공적 시설의 입장료 할인과 다양한 특전을 부여하는 「유학생 패스포트」의 발행을

추진합니다.

- 유학생, 연구자와 일본인 학생, 지역 사회의 교류를 만듦과 동시에 따뜻한 가족 분위기와 일본을 느낄 수 있는 호스트 패밀리 (교류 가정), 홈 스테이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 전개 3 해외 인재 활용의 추진

#### ◎ 해외 인재의 취업·활용에 연결되는 인턴 쉽 등의 도입

- 우수한 인재의 취업,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선진 기업 등의 인턴 쉽 제도의 사례를 연구하며, 우수한 해외 인재를 확보하려는 기업의 노력을 지원하겠습니다.
- 과거의 취업 체험형이 아닌 즉시 쓸 수 있는 인턴 쉽 제도를 관계 기관의 협조 하에 창설하겠습니다.
  - 해외 인재가 국내 기업에서 유상으로 인턴 쉽이 가능하도록 자격 외 활동 허가를 완화 하는 한편, 유학생 등이 대학 졸업 후에 일정 기간 취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 외국인도 회사를 만들기 쉬운, 일본인과 평등한 비즈니스 기회를 가질 수 있는 환경 만들기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외국인의 사업이 일본과 모국의 가교가 되는 경우, 그리고 일본의 자원을 활용해 국제 사회에 기여하는 새로운 시도의 경우에는 지원을 통해 그 시도를 국내외에 발신하겠습니다.

#### ◎ 해외 인재와 교토 기업 등을 연결하는 매칭 시스템의 구축

- 해외에서 온 유학생, 연구자, 문화인, 예술가 등이 어떤 기술,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활동을 하며, 장래 어떤 일을 하고 싶은가 등을 파악해, 그 정보를 「교토 해외 인재뱅크」(가칭)에 등록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토 기업, 특히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찾아, 기업과 인재를 연결하는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 인재뱅크에 등록되어 있는 유학생의 취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민간 기업과 적극적인 연계를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적극적인 정보 제공을 펼쳐서 기업과의 매칭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외 인재 잡 카페(직업 소개소)」(가칭)을 설치해서 해외 인재의 상담 체제를 충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해외 인재 활용으로 기업이 세계화, 활성화 된 성공 사례를 통해 기업에 대한 계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재뱅크의 인지도를 높이며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해외 인재의 활동을 소개해서 해외 인재의 활용을 촉진하겠습니다.

#### ◎ 해외 인재를 다목적으로 활용

- 해외 인재가 지역의 활성화와 국제화를 위해 다양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일상적인 활동의 장을 만들겠습니다.
- 유학생이 지역 만들기, 산업 활성화에 참가할 수 있도록 워크 샵(참가 체험형 학습)을 개최하고, 일본에 체재 중인 연구자, 학자가 연구 테마, 전문 분야에 관해서 지역의 아이들에게 가르쳐 아이들의 국제 감각 양성과 국제 이해, 일본의 역할 이해에 연결되도록 하겠습니다.

## 전개 4 지역이 하나되어 추진

### ◎ 해외 인재를 통한 다문화 공생 사회의 형성

- 해외 인재의 유입을 통한 사회의 영향과 부담 증가에 관해 정확히 인식하겠습니다. 해외 인재에 대한 이미지 상승을 위해 부민의 충분한 이해를 얻어, 다문화 공생 사회로의 부민 합의 만들기를 하겠습니다.
- 해외 인재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이문화 이해를 촉진하여 지역 속의 다문화 공생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앞으로 폭넓은 부민의 이해를 얻어가며 문화의 다양성을 배려한 교류형 사회를 형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 부민 참가의 시책 평가 시스템을 통해 부민 만족도의 향상

- 해외 인재의 유치에서 유입, 활용에 이르는 시책에 대해, 대학과 경제 단체 등의 관계자와 해외 인재 본인이 히어링, 모니터링의 평가를 시행합니다. 이를 통해 부민 만족도를 향상 의식하며, 과제와 문제점을 공유해, 새로운 시책을 검토합니다. (PDCA사이클의 운용)

### ◎ 해외 인재 활용의 원활한 추진 체제를 정비

- 행정, 기업, 대학, 경제 단체, 연구 기관, NPO 등의 긴밀한 연계하에 각각의 기관이 주체적으로 참가하여 상호 이익을 얻는 관계 (Win-Win전략) 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 부내의 행정 기관에서 다양한 기회를 만들어, 해외 인재의 활용에 노력해 지역의 다문화 공생을 진행하겠습니다.

## 6 그 외 책정 위원회의 주요한 의견

- 교토에서 개최되는 국제 이벤트를 전략적으로 이용해, 교토 문화의 독자성을 세계에 발신할 필요가 있다.
- 앞으로 노동력 부족이 예상되는 간병인, 간호사와 농업, 임업의 분야에 해외 인재를 유입할 필요가 있다.
- 해외 인재가 기업과 지역에 정착하기 위해, 해외 인재의 입국 목적별 (유학, 연구, 비즈니스, 문화 등) 유입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 인턴쉽을 교토에서 관서 지역 일원에 보급할 필요가 있다.
- 아티스트·인·레지던스 (예술가 지원, 교류) 를 통한 매력 있는 도시 만들기를 하는 등, 이 플랜의 계획들을 하나 하나 확실한 형태로 만들어 전체적인 수준 향상을 할 필요가 있다.
- 「다문화 공생 사회」의 실현을 위해 미래를 명확하게 바라보고, 시책 추진에 있어서도 종합 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폭넓은 부민의 의견을 반영한 「다문화 공생 기본 조례」(가칭)의 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KYO의 해외 인재 활용 계획 추진 체제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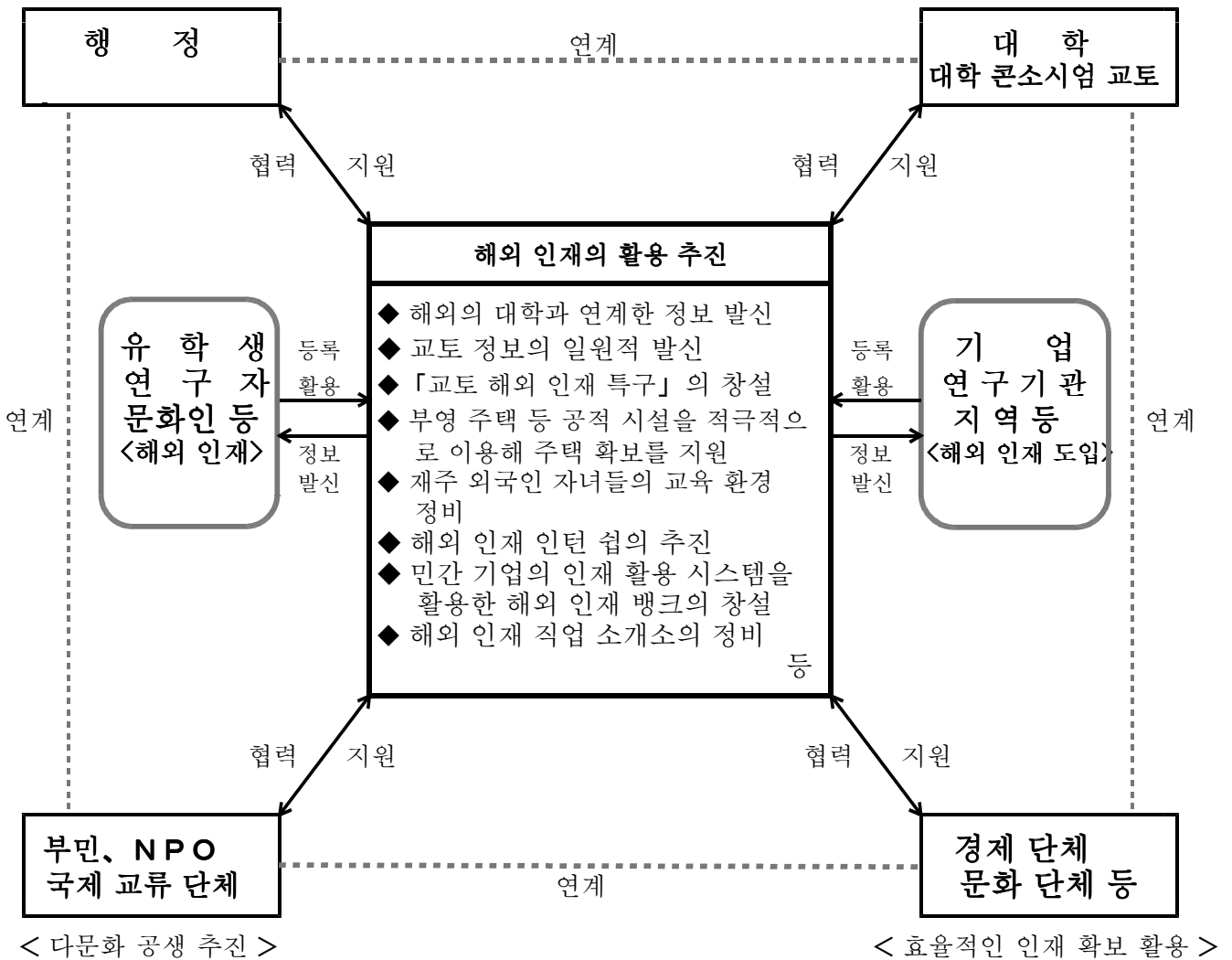
## < 해외 인재를 둘러싼 과제 >

「세계 속의 교토」의 역할  
 대학의 국제 경쟁력 충실  
 해외 인재의 정착을 촉진하는 사회 형성  
 기업 등과 해외 인재의 중개 역할을 하는 시스템의 확립  
 해외 인재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이해의 촉진

각 주체의 방향성의 명확화와 역할 분담에 의한  
 과제 해결의 추진

< 새로운 국제화 전략 >

< 국제 경쟁력 향상 >



「KYO의 해외 인재 활용 플랜」 책정 위원회 위원 명부

(참여)

성명	직업 등
스도우 신지	교토산업대학 교수
나카무라 준이치	(재) 국립 교토 국제 회관 관장

(위원)

성명	직업 등
아리타 미치요	(특활) 관서 국제교류단체협의회 사무국장
권 수진	교토부 명예 우호 대사 (소노다 여자대학 강사)
사가네 마코토	교토 지역유학생교류 추진협의회 위원
시미즈 이쿠코	(재) 대학 콘소시엄 교토 주간
슈 이세이 (좌장 대리)	리츠메이칸 대학 정책 과학부 교수
니이노베 키요시	(주) 국제 전기 통신 기초 기술 연구소 담당 과장
후지와라 토시유키	(재) 교토부 국제 센터 상무 이사
호소오 마사오	(사) 교토 경제동우회 국제문제 연구위원회 위원장
무네타 요시후미 (좌장)	교토부립대학 인간환경학부 조교수
모리 준이치	교토대학 유학생센터 교수

(경칭 생략 · 50 음 순)

책정 위원회 개최 현황

평성 16년 6월 9일 (수)	제 1 회 책정 위원회
평성 16년 7월 5일 (월)	제2회 책정 위원회
평성 16년 8월 6일 (금)	제3회 책정 위원회
평성 16년 8월 23일 (월)	지사와 참여 의견 교환
	제4회 책정 위원회
평성 16년 9월 14일 (화)	정책 조정 회의
평성 16년 9월 27일 (월)	제5회 책정 위원회
평성 16년 11월 23일 (화)	경영 전략 회의
평성 16년 11월 26일 (금)	제6회 책정 위원회